

역사서로서의 편지와 여성 재현의 문제

— 『탈식민이성비판』에 나타난 서발턴 개념을 중심으로
진 리스의 『광막한 싸가소 바다』와 토니 모리슨의 『자비』 읽기

오 예 지*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가야트리 스피박의 서발턴(Subaltern) 개념을 바탕으로, 진 리스의 『광막한 싸가소 바다』와 토니 모리슨의 『자비』, 두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의 편지 쓰기가 남성의 편지 쓰기와 다르다는 것을 논하고자 한다. 스피박은 『탈식민이성비판』에서 영국 장교인 제프리 버치의 편지를 분석하며 사적인 문서인 편지가 사료로서 권위를 부여받을 때, 편지서술자인 남성의 경험이 보편성을 획득한다고 보았다. 필자는 스피박의 의견에 동의하며 이를 바탕으로 『제인 에어』를 되받아 쓴 『광막한 싸가소 바다』와 『자비』의 인물들의 편지를 살펴볼 것이다. 편지는 수신인

* 서울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박사과정

주제어: 스피박, 토니 모리슨, 진 리스, 식민지 여성, 서발턴, 편지, 『탈식민이성비판』, 『자비』, 『광막한 싸가소 바다』

Gayatri Chakravorty Spivak, Jean Rhys, Toni Morrison, colonial women subaltern, letter-writing, *A Critique of Postcolonial Reason*, *Wide Sargasso Sea*, *A Mercy*

과 발신인 사이에 암묵적으로 통용되는 내용과 형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편지는 사적이면서도 공적인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소설 속 남성 편지의 서사는 역사서 속의 편지처럼 여성을 토착정보원으로 이용하고, 여성을 제한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제국의 지배 이념을 유지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광막한 싸가소 바다』의 다니엘은 편지 쓰기를 통해 앙투아네트를 토착정보원으로 전환시킬 뿐 아니라 로체스터와 그 스스로를 식민 주체로 거듭나게 한다. 반면 『자비』의 플로렌스와 레베카의 편지는 여성의 편지에 기대되는 내용과 형식을 벗어난다. 가부장제와 식민지 노예무역을 바탕으로 지어진 제이콥의 집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플로렌스는 시작과 끝점을 알 수 없는, “발화하며 쓰기”라는 독특한 전략을 취하며 백인 남성 식민 주체 서사의 시간성을 탈피한다. 동시에 모리슨은 다른 인물들의 목소리를 중첩시키며 타자들의 발화할 공간을 모색한다. 레베카는 기존의 편지 형식을 유지하되, 편지의 수신자인 남성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통용되는 내용을 적지 않음으로써 기존 남성 편지 구조를 교란시키고 소설 속 여성 인물들의 사회적인 자아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다.

1. 들어가며

본 논문은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Chakravorty Spivak)의 역사에 대한 견해를 바탕으로 진 리스(Jean Rhys)의 『광막한 싸가소 바다』(*Wide Sargasso Sea*)와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의 『자비』(*A Mercy*)를 읽을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역사에 대한 스피박의 견해를 정리한 후 소설을 살펴보고자 한다. 스피박의 「서발턴은 발화할 수 있는가?」(“Can the Subaltern Speak?”)¹⁾는 탈식민주의와 여성주의에 끼친 영향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우선 탈식민주의적 논의의 관점으로 접근해보면, 스피박은 라

나지트 구하(Ranajit Guha)를 필두로 한 기존 서발턴연구집단이 내린 서발턴의 정의와 서발턴의 발화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²⁾ 서발턴연구집단의 논점은 거칠게 말해, 식민지 역사에서 배제된 농민들의 주체성을 되찾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식민 지배 계급이 식민지 인도의 역사를 썼기 때문에, 구하는 농민/민중의 목소리를 감추고 있는 식민지배 이념이 담긴 역사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나아가 역사가 기록하지 못한 그들의 이야기를 서발턴 고유의 의식으로 재구성하려 했다.³⁾ 디페시 차크라바르티(Dipesh Chakrabarty)는 스피박이 인도를 언어적으로 전환시켜 서발턴 연구에 공헌을 했다고 지적했다. 차크라바르티가 적절하게 지적했듯 스피박의 주장은 서발턴 연구회가 발화기회가 박탈된 농민들의 목소리를 복원하려는 과정 속에서도 식민지배 원리를 그대로 따르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⁴⁾ 스피박은 서발턴 논의에 대해 제국과 인도 가부장제에 대한 논의가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라니(Rani)⁵⁾와 같은 인도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과 사건에 대한 논의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⁶⁾ 나아가 서발턴연구집단이 되살려낸 목소리는 인

1) Gayatri Chakravorty Spivak (1994) "Can the Subaltern Speak?" *Colonial Discourse and Post-colonial Theory* (ed. by Patrick Williams and Laura Chrisman), New York: Columbia UP, p. 78.

2) Spivak (1994), p. 78.

3) Ranajit Guha (1997), *Dominance Without Hegemony*, Cambridge: Harvard UP, p. xi.

4) Dipesh Chakrabarty (2000), "Subaltern Studies and Postcolonial Historiography," *Nepantla: Views from South* 1.1, pp. 24-25. 파르타 채터지(Partha Chatterjee)는 스피박의 논의가 민중뿐만 아니라 엘리트 의식에도 서발턴적인 요소가 있음을 인식시키는데 공헌했다고 주장했다(Partha Chatterjee (1999), "In Conversation with Anuradha Dingwaney Needham," *Interventions*, 1.3, p. 417).

5) 여기서 라니는 이름이 아니라 힌두어와 산스크리트어 등으로 "여왕"이라는 뜻이다.

6) 로잘린드 오헨런(Rosalind O'Hanlon)은 스피박의 주장에서 성차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 서발턴 연구 중 자유로운 "주체-행위자"는 남성뿐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서발턴 운동이 남성 중심적인 실천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Rosalind O'Hanlon (1988), "Recovering the Subject Subaltern Studies and Histories of Resistance in

도 농민 남성의 것이 아닌 구하와 같은 인도 엘리트 계급의 것이며, 그들이 인도 농민 남성을 앞세워 복화술로 말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스피박은 주장했다.⁷⁾

“서발탄이 역사에서 발화할 수 있는가?”라는 스피박의 질문은 이 물음 자체가 다분히 문학적인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다. 스피박의 전략은 역사를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말하자면 이성, 과학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 기존의 견해와 다르게, 작가가 의도를 갖고 생산해낸 작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스피박은 인도의 역사서에 등장하는 개인들이 작성한 문서가 아무런 제약 없이 사료로서 등장하는 것이 문제적이라고 지적한다. 한 예로 앞서 언급한 라니에 대한 기록을 들 수 있겠다. 스피박에 따르면 라니에 대한 기록은 영국 군대에 대위로 복무 중인 제프리 버치(Geoffery Birch)가 총독에게 보낸 편지와 사망기록부 정도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이 기록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여왕이라는 인도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에 대한 기록이 영국 대위와 총독이 나누는 편지만을 근거로, 더군다나 이름도 없이 “라니”라는 명칭으로 재현된다는 점이다. 이때 식민지 역사의 중요한 공적인 문서들의 상당수는 아이러니하게도 기밀 편지이거나 기관 내부에서만 읽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편지는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를 담은 문서지만, 발신인과 수신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역사 사료로서 등장할 수 있다. 스피박에 따르면 제프리 버치는 라니에 관하여 편지를 씌으로써 식민 “주체”라는 보편적인 자아로 거듭난다. 편지쓰기를 통해 제프리 버치가 들은 “소문은 정보로 대체되고”, 식민지에서 그는 “낮선 자에서 주인”으로, 대문자 주체이자 주권자로 재각인 된다고 볼 수 있다.⁸⁾ 반면 라니는 이름을 잃은 채 식민지배서사와 가부장제 안에서 이

Colonial South Asia,” *Modern Asian Studies* 22.1, pp. 189-224).

7) Gayatri Chakravorty Spivak (1999), *A Critique of Postcolonial Reason: Toward a History of the Vanishing Present*, Cambridge: Harvard UP, p. 255.

8) Spivak (1999), p. 213.

중으로 침묵 당했다.

역사서가 임의의 생산물로, 제국/가부장제라는 지배 이념을 뒷받침하는 (무의식적) 목표로 쓰였다는 스피박의 주장은 역사서를 문학 텍스트처럼 분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연다. 스피박은 역사와 문학이 서로 “현실 효과”를 생산해 낸다”고 주장했다.⁹⁾ 이는 문학과 역사가 공모(共謀)¹⁰⁾하여 제국의 지배를 정당화 하는 식민지 역사를 썼다는 뜻이다.¹¹⁾ 이러한 스피박의 관점으로 역사와 문학을 읽는다면,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는 역사 텍스트 자체가, 혹은 숨어있는 작가가 제공하는 서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결을 거슬러 이해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제대로 해석하는 것일 것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스피박의 견해에 동의하며 두 소설에 등장하는 편지를 다룰 것이다. 그중에서도 『광막한 싸가소 바다』 속 남성들의 편지가 제프리 버치의 편지와 동일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가정에서 논의를 출발할 것이다. 이를 논하기 전에 『광막한 싸가소 바다』에 대한 스피박의 견해를 정리한 후 본고의 주장을 전개하고자 한다. 스피박은 리스의 소설을 비평하기에 앞서 이 소설의 원형인 샬롯 브론테(Charlotte Brontë)의 『제인 에어』(*Jane Eyre*)가 제국주의에 공모하고 있다고 보았다. 스피박은 브론테의 소설이 여주인공인 제인(Jane Eyre)이 개인성을 획득하는 과정이라 분석하는 산드라 길버트(Sandra Gilbert)와 수전 구바(Susan Gubar)의

9) Spivak (1999), p. 203.

10) 모리슨도 문학과 역사가 서로 공모하여 지배 이념을 생산해 냈다고 주장했다. 모리슨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미국 문학이 구세계와 차별화되는 신세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일조했으며,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이 흑인이라는 대타자를 상정하는 것이다. 문학은 무의식적으로 인종주의와 공모하여 흑인을 백인의 대타자로 정형화함으로써, 순수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백인 남성이라는 개인성을 국가적 집단의 정체성으로 구축한다(Toni Morrison (1993), *Playing in the Dark*, New York: Vintage, pp. xii-xiii).

11) Spivak (1999), p. 203.

의견에 동의하는 한편,¹²⁾ 작가인 브론테가 제국의 질서에 공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¹³⁾ 스피박은 길버트와 구바가 이 소설의 또 다른 여성인물인 버사(Bertha Mason)에게는 주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설이 제인이라는 여성을 주체성을 가진 개인으로 만들기 위해, 그리고 로체스터(Edward Rochester)가 가부장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 버사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¹⁴⁾ 스피박은 브론테의 소설이 개인의 영혼을 생성해내는(soul-making), 일종의 서구 개인주의자(individualist)를 구성해내고 있음을 지적하며, 작가 브론테는 인지하지 못하는 이 점이 바로 제국주의의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¹⁵⁾

본고가 논하려는 『광막한 싸가소 바다』는 『제인 에어』를 되받아 쓴 소설로, 리스는 소설의 무대를 자메이카로 옮겨 로체스터의 식민지 경험을 되살리는 한편, 버사에게 앙투아네트(Antoinette)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서사에서 사라진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 하지만 소설은 무대를 옮겨 앙투아네트라는 인물로 버사를 되살려 냈음에도 불구하고 『제인 에어』와 같은 결말로 끝맺음을 한다. 이에 대해 필자는 편지라는 문서를 통해 이러한 결말이 이루어진다고 규명할 것이다. 스피박은 로체스터의 편지를 오이디푸스 교환 과정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넘어가는 데에 그치지만,¹⁶⁾ 본고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소설 속 편지가 앙투아네트를 버사로 바꾸어 손필드의 다락으로 데려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제국의 법과 경제체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또한 본고는 『광막한 싸가소 바다』에 대한 스피박의 논의를 토대로

12) Spivak (1999), p. 120.

13) Spivak (1999), p. 122.

14) Spivak (1999), p. 122.

15) Spivak (1999), p. 116.

16) Spivak (1999), p. 128.

모리슨의 『자비』의 인물들이 작성하는 문서들을 살펴볼 것이다. 『자비』는 17세기 아메리카를 배경으로, 영국인 제이콥(Jacob Vaark)이 레베카(Rebekka Vaark)라는 영국 여성을 아내로 맞이해 가정을 꾸리고, 흑인 노예인 플로렌스(Florens), 아메리카 원주민인 리나(Lina)와 난파된 배에서 구해낸 소로우(Sorrow)가 함께 농장을 운영한다. 지상 낙원 같은 이 유사 가족 공동체는 제이콥이 갑작스럽게 저택을 짓겠다고 선언하며 깨지게 된다. 저택을 짓는 가운데 제이콥이 죽고, 부인인 레베카가 병에 걸리자 그녀를 고칠 방법을 아는 대장장이를 데려오기 위해 플로렌스가 저택을 떠났다 대장장이를 불러 돌아오는 것이 소설의 큰 줄거리이다. 소설의 큰 뼈대를 이루는 이야기는 제이콥이 신세계에 정착해가는 과정으로, 그의 이야기는 고아인 제이콥이 스스로의 의지와 능력, 그리고 도덕성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자수성가 신화라고 할 수 있겠다. 제이콥의 이야기는 배경은 다르지만 가족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자신의 도덕성과 노력으로 성공한다는 측면에서 로체스터와 제인의 서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광막한 싸가소 바다』가 앙투아네트와 로체스터라는 결혼제도와 법이라는 형식 안에서 상대적인 약자/타자의 시선을 보여주는 데에 그쳤다면, 모리슨은 소설의 주된 화자를 레베카나 제이콥이 아닌 흑인 노예 플로렌스로 내세우는 한편, 다른 인물들이 그녀의 서사를 보충해주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설의 주된 화자인 플로렌스는 계급적으로도, 인종적으로도 그리고 언어 능력 수준 또한 화자라는 임무를 맡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플로렌스는 제이콥이 도르테가(D'Ortega)로부터 돈 대신 받은 노예인 흑인 소녀로, 가톨릭 신부에게 짧은 기간 동안 영어를 배웠던 탓에 영어 구사가 능숙하지 않다. 또한 그녀의 모습은 소설 속 어떤 인물의 눈에도 완전한 인간으로 묘사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플로렌스가 제이콥의 빈 저택에 밤마다 몰래 들어가 등불로 비추며 대장장이에게 편지를 쓰는 모습은 백인

계약 노동자인 윌러드(Willard)나 스컬리(Scully)의 눈에 버사처럼 짐승의 모습과 같아 보이기도 하며, 제이콥의 혼령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모리슨이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 소설이 백인 남성과 여성의 결혼을 다루고 있다는 점, 흑인인 플로렌스가 짐승처럼 변한다는 점 등은 『제인 에어』로부터 모티브를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제인 에어』와의 유사성을 토대로 『광막한 싸가소 바다』에서 채 논의되지 못했던 인종적 타자들의 이야기에 대해 본고는 논하고자 한다.

모리슨은 플로렌스라는 화자를 통해 거대 담론이 타자들의 목소리를 지워버렸음을 드러내는 한편, 타자들이 서사에서 발화 할 수 있는 장소를 모색하고 있다. 이때 제이콥의 저택은 서사의 배경이 될 뿐만 아니라 플로렌스의 편지가 기록되는 공간이다. 또한 그의 저택이 계급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점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그 까닭은 대저택을 유지하기 위해 식민지와 가부장제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¹⁷⁾ 모리슨은 타자를 억압하는 거대 담론을 파괴하고 타자의 목소리를 복원하는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서사방식을 통해 거대 서사와 작은 목소리들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성을 창조해 낸다고 할 수 있겠다. 소설 속에서 인물들이 겪는 다양한 (비)연속적인 사건들은 레베카의 생명을 구하는 대장장이의 도착으로 끝이 난다. 대장장이가 이 저택에 도착하는 미래의 순간은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고, 제이콥의 죽음이 이야기한 현재는 미래의 순간에 의해 구원받는 것처럼 보인다. 이때 고통스러운 현재가 미래에 구원을

17)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는 제인 오스틴(Jane Austen)의 『맨스필드 파크』(*Mansfield Park*)에서 소설의 무대가 되는 영국의 컨츄리 하우스가 아프리카 노예 무역으로부터 나오는 경제적인 이득으로 인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Edward Said (1994), *Culture and Imperialism*, New York: Vintage, p. 89). 사이드는 오스틴이 영국성을 상징하는 이 거대한 저택을 유지하는데 식민지가 핵심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치경제 구도를 전면에서 드러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맨스필드 파크』와는 대조적으로, 비슷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자비』에서는 가문과 계급을 상징하는 컨츄리 하우스가 식민지 무역과 자본이 없이는 지어질 수 없었다는, 즉 제국주의와 식민지의 연결 고리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얻는다는 서사 구조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자서전식의 시간성이며, 역사주의적인 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간성은 근대의 시간성으로, 공간적으로 전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동시에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 시간적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목적지향적인 역사의 시간성은 소설 속에서 레베카를 구하기 위해 미래의 순간으로 달려가는 플로렌스의 발걸음과 같은 궤적을 그린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자비』의 큰 줄거리인 제이콥의 집이 갖는 의미를 문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 서사를 보충하는 서발턴들 중 플로렌스의 편지와 레베카의 편지를 살펴보고 『자비』가 제시하는 서발턴들이 발화하는 장소와 그 의미에 대해 고찰해 볼 것이다.

2. 본론

소설을 분석하기에 앞서 편지 속에 재현된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스피박의 의견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스피박은 여성들의 이름에 주목하면서 역사서에 여성이 불균형적으로 재현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서론에서 언급한 라니의 예를 살펴보면, 라니는 다양한 이름으로 변주되며 재현되는데 이때 문제는 그녀의 이름이 고유명사이기보다는 제국주의와 가부장제의 힘을 증명하는 일반명사로서 존재한다는 점이다.¹⁸⁾ 스피박은 식민주체가 식민 역사 서사에서 여성의 이름이라는 “고유명사를 일반명사로 바꾸어버리고” 이를 식민 역사 서사에 부합하게 번역하여 새로운 역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록물들을 사회과학적인 증거로 삼는 것은 “위험한 여흥”이라고 날카롭게 비판했다.¹⁹⁾ 주체성을 함의하는 그녀의

18) Spivak (1999), p. 231.

진짜 이름이 역사서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반면, 라니가 여성이란 일반명사 대신 사용된다.

그렇다면 바로 이것이 라니가 한 개인으로서 문서보관소에 잠깐 나타나는 이유가 된다. 그녀가 위대한 게임의 체스판에서 왕의 아내이자 좀 더 약한 그릇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녀의 이름도 확실히 모른다. 그녀는 한번은 라니 굴라니로, 또 한 번은 굴라리로 지칭된다. 그녀는 일반적으로 동인도 회사의 고위급 장교들에 의해 라니라고 적절하게 언급되며, 버치와 로스도 “이 라니”라고 그녀를 언급한다.

This, then, is why **the Rani** surfaces briefly, as an individual, in the archives; because she is a king's wife and a weaker vessel, on the chessboard of the Great Game. We are not sure of her name. She is once referred to as Rani Gulani and once as Gulari. In general she is referred to, properly, as the **Ranee** by the higher officers of the Company, and “this **Ranny**” by Geoffrey Birch and Robert Ross.²⁰⁾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버치와 멧칼프에게는 왕비를 가리키는 “라니”라는 명칭 외에는 그녀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녀가 “굴라니”라든지 “굴라리”와 같은 식으로 모호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녀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그렇다고 그녀가 왕비라는 존칭으로 불리는 것도 아니다. 라니는 이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Rani”나 “Ranee” 혹은 “Ranny”와 같은 식으로 “라니”와 유사한 영어식 이름으로 바뀌어 기록되고 있다. 이름은 “전유(專有)의 실천”(an exercise of appropriation)으로, 이름 붙이기는 지배 담론의 상징적 의미를 대상에게 부여하고 강제하는 행동이다.²¹⁾ 다시 말해 이름 붙이기가 지배

19) Spivak (1999), p. 232.

20) Spivak (1999), p. 231. 강조는 필자.

21) Deborah A. Kimmey (2005),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Metatextuality

담론의 힘을 행사하는 것을 나타낸다면, 고유한 이름을 지우고 사회적 명칭인 라니를 이름으로 재명명하는 행위와 나아가 이를 “공식적”으로 기록하여 역사화 하는 행위는 모두 식민 주체가 합법적으로 타자를 생산한 증거가 역사적인 맥락에 숨어있음을 알 수 있다.

식민 역사에 굴라니/굴라리는 개인으로서 존재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제국의 지배 서사 쓰기 맥락에서 필요에 의해 등장하는 소재에 지나지 않는다. 스피박은 그녀가 역사 기록에 등장하는 이유가 단지 그녀의 부분에 지나지 않는 왕의 아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위의 인용문에서 스피박이 굴라니/굴라리를 “왕비”(queen)가 아니라 “왕의 아내”(king’s wife)라고 칭한 것은 그녀를 가부장제에서 억압받고 있는 대상으로, 즉 왕의 종속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스피박의 의도가 담겨 있다. 굴라니/굴라리는 남성 식민 주체들인 동인도 회사와 제프리 버치에 의해서, 가부장제에 의해 이중 결정되었다. 말하자면 그녀는 남성의 편지에 쓰이기 위해 산출되고 편지의 맥락에 따라 재정의 된다고 볼 수 있다. 제프리 버치가 총독 대리에게 굴라니/굴라리에 대해 보고하는 편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라니는 남편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 같습니다”(This Ranny appears to be completely devoted to her husband)와 “그녀의 목숨과 라자의 목숨은 하나”(her life and the Rajah’s are one)²²⁾라는 문장은 그녀를 남편에게 헌신하는 존재로, 그리고 오직 남편에게 종속된 것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그 남성이 제프리 버치라는 식민 주체의 주관적인 관찰과 분석에 의해 공식적인 기록으로 즉, 역사 속에 그녀는 단지 봉건제도 하의 가부장제의 희생양으로 규정되어버린다. 요약하자면 라니의 정체성은 식민주체가 그녀를 역사 재현을 하며 부여한 허위 주체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nd the Politics of Reading in Jean Rhys’s *Wide Sargasso Sea*,” *Women’s Studies* 34.2, p. 171.

22) Spivak (1999), p. 234.

스피박은 『탈식민이성비판』(*A Critique of Postcolonial Reason: Toward a History of the Vanishing Present*)의 「문학」에서 여성의 사회정체성이 모두 남성들이 작성한 문서에 의해 규정된다는 주장의 예시를 『광막한 싸가소 바다』에서 찾는다. 앙투아네트는 스피박이 지적하듯 제국의 “법” 때문에,²³⁾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영국의 법에 근거한 결혼과 유산상속의 과정에서, 이름을 빼앗기고, 사랑하는 크리스토프린(Christophine)과 그랑부아(Granbois)로부터 멀어져 낯선 영국, 손필드 저택(Thornfield) 다락방에 갇힌다. 앙투아네트²⁴⁾의 공간 이동이 어머니와 자신의 결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때 로체스터가 자신을 중심으로 주변을 해석하며 세계를 재배열하는 행동이 편지쓰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은 상기해야 할 사실이다. 우선 로체스터의 편지를 살펴보자.

아버지께. 3천 파운드가 어떤 질문이나 조건도 없이 제게 지불되었습니다. 그녀에게 무엇을 해줘야 한다는 조항도 없이 말입니다 (두고 보아야겠지만요). 저는 꽤 괜찮은 재산을 손에 넣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나 아버지가 사랑하는 형님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겠습니다

23) Spivak (1999), p. 125.

24) 앙투아네트의 정체성에 대해 스피박은 나르시시즘적 관점으로 논했다(Spivak (1999), p. 126). 나르시시스 신화에서 등장하는 에코에 대해 스피박은 「에코」(“Echo”)라는 논문을 쓴 적이 있다(Gayatri Chakravorty Spivak (1996), “Echo,” *The Spivak Reader* (ed. by Donna Landry and Gerald MacLean), New York: Routledge, pp. 173-202). 이 논문에서 스피박은 에코를 수동적인 침묵하는 타자로서가 아니라 주체를 발화를 반복하면서 이를 다르게 되돌려주는 전략을 통해 나르시시스의 자아 주체성을 전복하기를 시도했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스피박의 연구를 바탕으로 알렉시스 워(Alexis Wick)은 한걸음 더 나아가 근대 주체성의 나르시시즘적 요소와 유럽의 근대성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하였다(Alexis Wick (2013), “Narcissus: Woman, Water and the West,” *Feminist Review* 103.1, pp. 42-57). 스피박의 「에코」와 앞으로 본고개 논하게 될 자서전의 관계를 다룬 글로는 제인 히들스턴(Jane Hiddleston)의 글이 있다(Jane Hiddleston (2010), “Spivak’s Echo: Autobiography, Narcissism and the Theoretical Voice,” *Poststructuralism and Postcoloniality*, Liverpool: Liverpool UP, pp. 151-73).

니다. 편지를 써달라거나 비열한 요구도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둘째아들의 교활한 전술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제 영혼을 팔았거나 아버지께서 제 영혼을 파셨지만 어쨌건 이게 그렇게 나쁜 거래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자는 아름답다고 생각됩니다, 여자는 예뵈요. 그런데...

Dear Father. The thirty thousand pounds have been paid to me without question or condition. No provision made for her (that must be seen to). I have a modest competence now. I will never be a disgrace to you or to my dear brother the son you love. No begging letters, no mean requests. None of the furtive shabby manœuvres of a younger son. I have sold my soul or you have sold it, and after all is it such a bad bargain? The girl is thought to be beautiful, she is beautiful. And yet ... 25)

위 편지에서 유추할 수 있듯 로체스터의 결혼 목적은 재산을 얻는 것이다. 위 대목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편지가 등장하는 시점이다. 편지는 로체스터가 앙투아네트와 그랑부아로 가는 길에 주변 환경과 그녀로부터의 괴리감을 느낀 후 이어지는데,²⁶⁾ 이러한 로체스터의 심정은 영국과 자메이카라는 지리적인 차이 때문만은 아니다. 이는 그가 결혼(제도)을 통해 자신보다 부자인 앙투아네트 아버지의 재산을 아무런 조건 없이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그의 주변 환경에서 앙투아네트로 시선을 이동하며 “자신이 그녀를 산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을 산 것”(I have not bought her, she has bought me)²⁷⁾이라며 자신의 결혼을 거래에 비유한 사실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로체스터의 내러티브에서 드러나는 것은 로체스터의 심적 고통이 앙투아네트나 자메이카 때문이 아니라 자신과 아버지 그리고 형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로체

25) Rhys (1999), p. 41.

26) Rhys (1999), p. 41.

27) Rhys (1999), p. 41.

스터의 편지는 그의 아버지를 향한 일종의 고백인데, 그가 돈을 위해 낯선 땅으로 “팔려 온” 까닭은 형과의 마찰을 줄이고 동시에 사랑하는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앙투아네트와 로체스터의 결혼은 양쪽 아버지들과 형제들 즉 가문을 위한 것이며, 이 질서는 가부장제 질서를 유지시키려는 것이다.

로체스터는 자신이 가부장제의 피해자/패배자라고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앙투아네트와 자메이카에 대해서는 가부장적 권력 구도를 생산해내는 가해자의 입장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의 인식의 한계는 편지쓰기를 통해 드러난다. 로체스터는 그랑부아에 도착해서 앙투아네트나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아버지에게 편지 쓰기에 더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책상과 종이, 펜 그리고 잉크가 놓여있는 방을 자신의 “피난처”²⁸⁾라고 생각했다는 점, 나아가 그 방이 원래 앙투아네트의 아버지인 메이슨 씨의 방이라는 점이다. 결혼생활을 하게 될 집에 도착하자마자 의미를 부여하고 안도감을 느끼는 공간이 침실이 아니라 그 옆에 붙은 작은 벽장 같은 공간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도 이 공간에 필기도구가 놓여있는 것을 보고 안도감을 느낀다는 점에서 편지 쓰기를 통해 그가 자신의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이 방의 전 주인이 메이슨 씨였다는 점이 그에게 만족감을 준다는 대목에서는 그가 결혼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이 “아버지의 공간/이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 하듯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 중에 이름이 지워진 서간집(Life and Letters of ...)은 로체스터의 편지가 이 책처럼 이름 없는 자 즉, 가문을 물려받지 못한 자의 편지임을 암시한다.

28) Rhys (1999), p. 44.

29) Rhys (1999), p. 44.

아버지께. 저희는 자메이카에서 불편한 며칠을 보내고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 윈워드 섬의 작은 사유지는 가족 재산의 일부로 앙투아네트가 이곳에 굉장한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획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리처드 메이슨 씨와 거래를 했습니다. 아버지도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그의 부친은 제가 영국을 떠난 직후 사망하셨습니다. 리처드는 좋은 친구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친근하게 대해줍니다. 그를 좋아하게 된 것 같고 저를 완전히 믿고 있습니다.

Dear Father, we have arrived from Jamaica after an uncomfortable few days. This little estate in the Windward Islands is part of the family property and Antoinette is much attached to it.... All is well and has gone according to your plans and wishes. I dealt of course with Richard Mason. His father died soon after I left for the West Indies as you probably know. He is a good fellow, hospitable and friendly; he seemed to become attached to me and trusted me completely.³⁰⁾

앞서 살펴본 첫 번째 편지가 그랑부아로 오는 길에 로체스터의 생각에 서만 멈췄다면 로체스터의 두 번째 편지는 이 방에서 쓰인다. 머릿속으로 구성한 편지와는 약간 변형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아버지로부터 인정 받고 싶은 그의 열망이 담겨있다. 스피박은 이 편지가 부쳐지지 않았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오이디푸스적인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³¹⁾ 위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편지의 독자로 아버지를 상정하고 있으나, 편지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소통의 도구라기 보다는 로체스터 개인성을 완성시키는 매개체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편지가 부쳐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편지/고백의 최초의 독자이자 최후의 독자가 로체스터라는 점이다. 그는 아버지의

30) Rhys (1999), p. 45.

31) Spivak (1999), p. 128.

이름을 물려받아 정체성을 완결한다는 기존의 오이디푸스 체계에 자신이 편입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으로 무의식적으로 편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거래는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다. 스피박은 편지 쓰기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완성한 남성들을 이름에 매달리는 자로 규정한 바 있다.³²⁾ 여기서 이름이란 라니의 경우에서처럼 개인성을 상징하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 즉 가문의 것이다.³³⁾ 그의 편지 쓰기에서 로체스터에게 물려받을 아버지(가문)의 이름이 없으며, 스스로가 이 도식에서 개인으로 오롯이 설 수 없는 처지에 대한 불안을 읽을 수 있다. 로체스터가 개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 도식 안에서 아버지(가문)의 이름을 대신하는 것은 앙투아네트 아버지의 이름이다. 로체스터는 결혼을 통해 메이슨 씨의 재산과 앙투아네트 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임무를 교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면밀히 살펴 보면 그 역시도 결혼 제도를 통해 아버지의 보호 아래로 편입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목에 대해 스피박은 로체스터가 소설 속에서 “남편”이나 “주인남”으로 불린다는 사실을 지적했다.³⁴⁾ 위에서 언급된 이름이 지워진 서간집, 그리고 로체스터가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지 못했다는 사실, 이 세 가지를 연결시켜 보자. 그렇다면 로체스터가 “남편”이나 “주인남”으로 불리는 것은 로체스터의 이름 붙이기에 대항하는 전략³⁵⁾이며, 가부장제의 지배 구조의 모순을 드러내는 장치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로체스터는 “규범적인 남성주체”(normative male subject), 다시 말해 가정

32) Spivak, Gayatri Chakravorty and Sarah Harasym (1990), *The Post-colonial Critic: Interviews, Strategies, Dialogues* (ed. by Sarah Harashym), New York: Routledge p. 106.

33) Spivak (1990), p. 106.

34) Spivak (1999), p. 129.

35) Graham Huggan (1994), “A Tale of Two Parrots: Walcott, Rhys, and the Uses of Colonial Mimicry,” *Contemporary Literature* 35.4, p. 653.

내에서 서구의 주체인 대문자 “Man”이자 “I”로 타자들에게 가부장적 권력을 행사하는 존재다.³⁶⁾ 하지만 리스는 그에게 소설이 끝나도록 이름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그 또한 장자상속법이라는 가부장적 질서의 피해자이며 동시에 이 체제를 통해서는 이름을 형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하녀이자 유모인 크리스토펜³⁷⁾이 말대꾸로 로체스터의 문자 언어 세계를 교란시키긴 하지만, 로체스터는 다니엘 코즈웨이(Daniel Cosway)의 편지를 받으며 앙투아네트에 대한 사고의 전환점을 얻는다.

선생님께. 오랫동안 생각하고 숙고하였으나 결국 거짓보다는 진실이 낫다 생각해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고 싶군요. 부끄럽게도 선생님께서는 메이슨 가족에게 속으셨습니다. 선생님의 신부가 원래는 코즈웨이의 딸이며, 영국의 신사인 메이슨씨는 단지 양부라는 이야기는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즈웨이 식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말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사악함이 그 식구들이 가진 유일한 악덕은 아니랍니다. 그 가계에는 광기가 흐르고 있지요. 코즈웨이 그 늙은이는 그의 아버지가 그랬듯이 광기로 발광하며 죽어갔지요.

36) Spivak (1999), p. 128.

37) 크리스토펜은 문맹으로, 로체스터와는 대조적인 인물이다. 문자 언어를 상징하는 로체스터의 고백이 피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타인을 왜곡하는데 비해, 크리스토펜의 음성 언어는 직선적이며 분명하고 상대의 심중을 꿰뚫고 들어간다. 이렇듯 문자언어의 세계로부터 자유로운 크리스토펜은 실제로도 앙투아네트를 규정하는 가부장제/제국의 질서로부터 자유롭다. 앙투아네트가 그의 시선과 언어로 고정되는 “아내”이자 “재산”의 제공하는 대상이 되지만, 크리스토펜은 “하인”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와 제국이 요구하는 하인/노예다움을 보이는 한편 끊임없이 로체스터의 말을 되받아 친다. 크리스토펜의 태도에 대해 캐롤린 버만(Carolyn V. Berman)은 그녀가 언어 검열로부터 자유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한바 있다(Carolyn V. Berman (2006), *Creole Crossings*, Ithaca: Cornell UP, p. 183).

선생께서는 그걸 내가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또 내가 왜 선생의 일에 간섭 하냐고 묻고 싶으시지요?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선생의 신부와 배다른 형제랍니다. 여기서는 그걸 ‘반쪽 가문’이라고 말하지요. 그녀의 아버지이자 제 아버지가 바로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이지요. 셀 수도 없이 많은 혼외자녀들 중 가운데 제가 가장 불운한 사람이며, 또 가장 가난하답니다.

Dear Sir. I take up my pen after long thought and meditation but in the end the truth is better than a lie. I have this to say. You have been shamefully deceived by the Mason family. They tell you perhaps that your wife's name is Cosway, the English gentleman Mr. Mason being her stepfather only, but they don't tell you what sort of people were these Cosways.... Wickedness is not the worst. There is madness in that family. Old Cosway die raving like his father before him.

You ask what proof I have and why I mix myself up in your affairs. I will answer you. I am your wife's brother by another lady, half-way house as we say. Her father and mine was a shameless man and of all his illegitimates I am the most unfortunate and poverty stricken.³⁸⁾

다니엘의 편지³⁹⁾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첫 번째로 로체스터에게 이 편지는 로체스터의 열등감을 극복하는 단초를 제공하며, 앙투아네트와 그녀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의심을 확신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편지 내용은 앙투아네트가 코즈웨이의 친딸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결혼으로 로체스터가 코즈웨이/메이슨의 재산을 소유한다는 점에서 앙투아네트가 자신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식의 합리화하는 데에 근거가 된다. 게다가 코즈웨이 가계(家系)에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정신 질환이 있다는 내용은 로체스터가 이상하다고 여겼던 앙투아네트의 행동들을 그녀의 광기로 해석할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38) Rhys (1999), pp. 56-57.

39) Rhys (1999), pp. 58-59.

말하자면 다니엘의 편지는 로체스터가 원하는 규범적인 남성 주체가 되는 데에 필요한 말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기능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는 로체스터의 토착정보원⁴⁰⁾인 셈이다. 로체스터가 담담하게 이런 편지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겠다.⁴¹⁾

로체스터가 이러한 다니엘의 편지를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다니엘의 편지가 남성 문자 세계에서 암묵적으로 합의된 격식과 내용을 담고 있다는 데에 있다. 그는 자신의 얘기가 진실임을 가장 먼저 밝히고, 로체스터가 겪었던 일들을 언급하며, 다니엘 자신이 로체스터의 상황을 알고 있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이 과정은 다니엘이 로체스터의 사회적 지위를 존중해주면서 다니엘에게 요구되는 “영어를 할 수 있는 충실한 유색인”의 역할을 수행해내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코즈웨이의 자식이라고 밝히며, 편지의 비밀을 보장받으면서도, 객관적인 위치를 확보한다. 무엇보다도 로체스터가 유색인인 다니엘의 얘기를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의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때문이다. 다니엘은 자메이카를 떠나 바베이도스에서 자신이 글을 읽고 쓰며 계산하는 능력을 배웠으며 이때 기독교를 접했다고 설명한다.⁴²⁾ 종합해 보자면 편지로 드러나는 그의 능력과 개인사(글을 읽고 쓸 수 있고, 선량한 기독교인이며, 집안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재산 한 푼 없다는 사실)가 편지의 독자인 로체스터에

40) 스피박은 “토착정보원”(native informa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요구되며 폐쇄되”(needed and foreclosed)어 서구 주체와 1세계에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제 3세계 지식인과 타자를 일컫는다(Spivak (1999), pp. 6-8). 스피박에 따르면 서발턴은 완전한 타자일 수 있었으나, 제국주의를 거쳐 이 체제를 공고히 하는 밑거름으로 작용하는 “길들여진 타자”(domesticated Other)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스피박은 제국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으로는 이 길들여진 타자를 “자아”(self)로 전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Spivak (1999), p. 130).

41) Rhys (1999), p. 59.

42) Rhys (1999), p. 58.

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만한 격식과 내용이기 때문에 그에게 공감을 사고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다니엘은 이 편지로 글을 쓰는 주체가 된다. 그는 자신에 서사에 맞게 앙투아네트의 정체성을 마음대로 쓰며 로체스터와 같이 식민 주체가 된다. 그는 소설에 중반에 이르기까지 언급 한 번 되지 않다가 위의 편지로 처음 등장했다. 다니엘은 원주민 중 유일하게 글을 쓴 인물이고, 남성 인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과거를 독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드러내는 인물이다. 또한 그는 소설 속 어떤 인물들보다도 자신의 이야기를 로체스터와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하는데, 이때 앙투아네트와 그녀의 가족이야기를 곁들여 설명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러한 특성은 앞서 살펴보았던 버치의 편지와 유사하다. 그는 자신이 앙투아네트와 이복남매라고 얘기하면서도 줄곧 앙투아네트를 비롯한 코즈웨이 가문의 사람들을 “그들”이라고 칭하고, “당신의 아내”라고 칭한다. 말하자면 그는 독자인 로체스터와 우리들에게 앙투아네트의 과거를 대신 쓰며 스스로의 자서전을 완성하고 있는 것이다. 앙투아네트가 다니엘의 이름이 다니엘 코즈웨이가 아니라 다니엘 보이드(Boyd)이며 코즈웨이 가문의 이름을 쓸 자격이 없다고 비난하지만,⁴³⁾ 로체스터는 그녀의 말이 이 편지보다 신뢰를 하지 않는다. 앙투아네트는 로체스터와 다니엘에게 이중으로 토착정보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니엘의 편지를 받고난 후 로체스터는 모두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 잡혔다, 마침내 앙투아네트를 “버사”라는 인물로 새로이 규정하며 재창조 해낸다.

‘그렇게 웃지 마시오, 버사.’

‘내 이름은 버사가 아니에요. 왜 나를 버사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나는 그 이름이 특히나 좋기 때문이요. 나는 당신을 버

43) Rhys (1999), p. 77.

사라고 생각하고 있소.’

...

‘버사’ 내가 말했다.

‘버사는 내 이름이 아니에요. 당신은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다른 이름을 부르면서 말이지요. 나는 그것 역시 오베아라는 것을 알아요.’

‘Don’t laugh like that, Bertha.’

‘My name is not Bertha; why do you call me Bertha?’

‘Because it is a name I’m particularly fond of. I think of you as Bertha.’

...

‘Bertha,’ I said.

‘Bertha is not my name. You are trying to make me into someone else, calling me by another name. I know, that’s obeh too.’⁴⁴⁾

위의 인용문에서 로체스터는 앙투아네트를 자신의 문자언어 세계로 인도하고 있다. 앙투아네트와 로체스터는 다니엘과 그 편지 내용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는데, 로체스터는 앙투아네트와의 대화를 피하는 반면 앙투아네트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의 오해를 풀려고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위의 인용문을 보면 두 사람은 대화를 한다기보다는 로체스터가 일방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 여기서 로체스터가 붙이는 “버사”라는 이름에 주목해야 한다. “버사”는 앙투아네트의 어머니의 이름이기도 한데, 이는 다니엘의 편지로 확신을 얻은 그의 앙투아네트에 대한 편견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앙투아네트의 말에 따르면 앙투아네트의 어머니 아네트(Annette)는 아름답지만, 딸인 앙투아네트에게는 무심하며, 아픈 아들에게만 애정을 쏟았다가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미쳐버렸다. 이때 그녀를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메이슨 씨조차 그녀를 버렸다. 이후 남편을

44) Rhys (1999), p. 81.

있고 제정신이 아닌 그녀는 흑인들의 성적인 대상으로 전락해버렸는데 이러한 정황은 다니엘을 비롯하여 유색인 남성들에 의해 그녀가 미쳤다는 단 하나의 평가로 손쉽게 해결된 것이다. 아네트의 일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남편과 자식이 없는 여성에게는 백인 중산층 여성이라는 경제적 지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그녀의 재산과 사회적인 지위가 가부장의 권위에 근거한 법에 의해서만 영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결혼과 법에 의해 여성의 정체성이 재규정되는 모습은 위의 인용한 로체스터의 말에서 한눈에 볼 수 있다. 로체스터가 앙투아네트를 자신이 특별히 좋아하는, 광기 어린 “버사”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그는 앙투아네트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버사로 생각하다”, “버사”라고 부르는 경지에 이른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오베아의 정의— “오베아에 대한 대답을 강요받으면 흑인들은 거짓말로 문제의 본질을 혼란시킨다. 때로는 이를 믿는 백인들도 있지만 허튼소리라고 무시해 버리는 척 한다”(They[negroes] confuse matters by telling lies if pressed. The white people, some times, credulous, pretend to dismiss the whole thing as nonsense)⁴⁵⁾—와 흡사한 모습이다. 하지만 서구/이성/문명을 상징하는 대문자 주체인 로체스터가 비이성적인 주술행위인 오베아를 행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아이러니하다.

아네트와 앙투아네트의 경우와 다니엘과 로체스터의 경우를 비교해 보았을 때 남성들은 법적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는 경우라도 결혼 “제도”로 사회적 정체성과 주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반면 여성들은 제국의 법이 닿는 곳에서는 언제나 남성에게 복속되어야 하는 존재일 뿐이다. 이러한 남성들의 법/문자 질서는 소설 속 여성들이 구사하는 말에 의해 교란될 뿐 완전히 파괴될 수 없고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없다. 또한 여성들은 언제나 남성의 법/문자 질서 내에서 통용

45) Rhys (1999), p. 64.

될 수 있는 근거로만이 남성들을 설득할 수 있다. 앙투아네트의 대답이 그녀 자신의 경험과 크리스토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의 편지를 (무의식적으로) 신뢰하는 로체스터에겐 통하지 않는다. 크리스토포과 앙투아네트로 환유되는 음성언어의 세계가 로체스터와 다니엘이라는 문자언어를 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힘의 구도 때문에 앙투아네트의 “말은 아무 소용이 없고,”⁴⁶⁾ 로체스터가 “버사”라고 부르는 것이 싫으면 서도 “당신이 원하실 대로”라는 말을 남기며 로체스터의 버사가 되는 것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⁴⁷⁾ 이처럼 앙투아네트가 버사를 받아들임으로써 소설 초반부터 지금까지 앙투아네트로서 형성했던 혼종적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영국인 남편이 강제한 버사, 즉 식민지 크레올 출신의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수용하는 모습이다.⁴⁸⁾ 이와 같은 구도를 살펴보았을 때 편지 작가들이 복화술로 말할 수 없는 크리스토포와 같은 인물은 서사에서 존재할 수는 있지만, 제국의 (소설) 서사가 편지 쓰기처럼 닫힌 구조이기 때문에 손필드로 가야 하는 시점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낼 서사적 공간이 부재하게 된다. 따라서 크리스토포는 서사에서 사라지고 앙투아네트는 손필드의 저택을 뛰어다니는 짐승 같은 크레올 부인이 될 수밖에 없다.⁴⁹⁾

46) Rhys (1999), p. 111.

47) Rhys (1999), p. 82.

48) 앙투아네트는 소설 초반에도 자신의 정체성이 혼종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바 있다. 앙투아네트는 캔버스에 실크 장미를 수놓으며 그 밑에 이름을 쓸 것이라 밝힌다. “내 이름을 불같은 빨강색으로 쓸 거야. 앙트와네트 메이슨, 구성은 코즈웨이, 마운트 칼바리 콘벤트, 스페니쉬타운, 자메이카, 1839”(I will write my name in fire red, Antoinette Mason, née Cosway, Mount Calvary Convent, Spanish Town, Jamaica, 1839; Rhys (1999), p. 31). 하지만 소설이 끝날 때 까지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49) 스피박은 소설 속에서 유일하게 주체적인 목소리/이름을 갖는 크리스토포이 결말에 이르러 아무런 설명 없이 서사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에 대해 그녀는 소설의 “약점이 아니라 특이한 강점”(a singular strength, not a weakness)이라고 주장한다(Spivak

『광막한 싸가소 바다』에서 남성들의 글쓰기가 19세기의 제국주의와 가부장제 서사 안에서 안전하게 작동하며 그 구조를 감추고 있음을 전면에 드러냈듯, 『자비』의 제이콥의 재산 문서 역시 사회 구조를 드러낸다. 하지만 제이콥의 문서는 『광막한 싸가소 바다』에서 로체스터가 감추려 했던 경제구조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 제이콥의 재산 문서들은 다니엘의 편지 못지않게 그 스스로를 규명하는 원천이자 자수성가하겠다는 그의 신념을 상징한다. 제이콥의 재산 문서가 편지는 아니지만, 거래 계약서, 재산 증서들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격식과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편지와 유사성이 있으며, 앞서 본 것처럼 제이콥 개인의 삶이 이 문서로 환유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앞선 편지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다.

(1999), p. 131). 스피박의 주장에 대해 베니타 패리(Benita Parry)는 크리스토퍼인 소설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퇴장해 버리는 것이 아니며, 그녀를 제국주의의 권위를 부여받은 지식 체계에 도전하는 대항 전통의 소유자이자 수행자로서 읽는다면, 그녀의 퇴장이 논리적이라고 반박한다(Benita Parry (1999), “Two Native Voices in *Wide Sargasso Sea*,” *Wide Sargasso Sea*, New York: Norton, p. 249). 이러한 패리와 스피박의 대립에 대해 대다수의 비평가들은 스피박의 해석에 동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카린 마도로시안(Carine M. Mardorossian)은 패리가 앙투아네트는 자기 결정권을 갖는데 실패했지만, 그 대신에 식민/가부장제 담론에 저항하는 크리스토퍼인을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패리가 높이 사는 서구적 주체성의 이상이 되는 순간, 그리고 이에 가장 잘 저항하는 순간에 떠나는 것은 역설적으로 흑인 크레올들이 침묵해야 하는 순간이며, 정형화되는 순간이다. 때문에 이 역설은 패리의 주장처럼 서구의 소설 속에서 재현될 수 없는 흑인 크레올 주체들을 서구 주체가 해석하지 않은 순수한 재현들로 보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것이 마도로시안의 주장이다(Carine M. Mardorossian (1999), “Shutting Up the Subaltern: Silences, Stereotypes, and Double-Entendre in Jean Rhys’s *Wide Sargasso Sea*,” *Callaloo* 22.4, p. 1071). 피터 훌름(Peter Hulme)은 스피박이 사용하는 “원주민”(Native)이라는 용어의 복잡함을 지적한다. 그는 원주민이 서인도 제도에서 태어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인지, 아니면 서인도 제도에서 사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한데 “흑인 크레올”이나 “백인 크레올”로 나누는 것 자체가 식민주의의 욕망의 발현이라는 것이다(Peter Hulme (1994), “The Locked Heart: the Creole Family Romance of *Wide Sargasso Sea*,” *Colonial Discourse/Postcolonial Theory*, Manchester: Manchester UP, p. 75). 이러한 맥락으로 보았을 때 크리스토퍼인 또한 자메이카 출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녀의 정체성도 앙투아네트만큼이나 복잡하다고 볼 수 있다.

제이콥에게 미국은 로체스터에게 자메이카가 그랬던 것처럼 기회의 땅이다. 로체스터와 소설 속 도르테가는 귀족계급이긴 하지만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을 받지 못하는, 말하자면 가문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들이다. 도르테가는 “재산을 한 푼도 받을 가망이 없는, 포르투갈 목장주의 셋째 아들”⁵⁰⁾이었으나, 앙골라에서 노예무역을 통해 돈을 벌어 고국이 아닌 미국에 지주 계급으로 안착했다. 이들과 제이콥 모두 구세계에서는 대저택을 소유할 수 없는 위치였지만 도르테가는 노예무역과 결혼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대저택을 유지하고 “수놓은 실크와 레이스 카라”⁵¹⁾를 입는 지주 계급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반면 제이콥은 귀족은 아니지만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인이다. 때문에 제이콥에게 미국은 “궁상맞은 고아가 지주가 될 수 있는”⁵²⁾ 기회의 땅이다. 제이콥의 경우처럼 고아가 자신의 타고난 도덕성과 능력만 가지고 자수성가한다는 내용은 제국주의 시대 소설에서 자주 등장했다. 이는 소설 작가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덕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스피박이 지적하듯, 서구 개인주의 전통에 이와 같은 개인 영혼 생성이 필수적인 요소였기 때문이다.⁵³⁾ 제이콥의 내러티브와 로체스터의 내러티브의 속성은 종류만 다를 뿐, 모두 제국주의 이념이 내재되어 있다. 한 예로 그들의 자연에 대한 인식을 들 수 있겠다. 제이콥에게 미국에서 지주가 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장소를 유의미한 장소로 만드는 것이며 야생의 삶에서 온화한 삶을 꾸리는 것”을 의미한다⁵⁴⁾는 의견이 로체스터가 자메이카 자연에 갖는 견해—모든 것이 지나치며, 자신을 향해 적의를 품고 있는 것⁵⁵⁾ 처

50) Morrison (2008), *A Mercy*, New York: Vintage, p. 18.

51) Morrison (2008), p. 17.

52) Morrison (2008), p. 14.

53) Spivak (1999), p. 116

54) Morrison (2008), p. 12.

55) Rhys (1999), p. 82.

럼 보인다—와 정반대로 보이지만, 자연을 서구의 시선을 재해석하고 개발해야한다는 점에서는 두 견해는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제이콥은 도르테가로 환유되는 구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을 보낸다. 그는 “포획한 노동력에 의존한 부를 조소했고,⁵⁶⁾ 노예보다는 어디든 들고 다닐 수 있는 “주화, 지불증서, 권리 포기각서”⁵⁷⁾로만 거래했다. 이는 유럽을 상징하는 구신분제를 비판하는 제이콥의 신념을 잘 드러내는 부분으로, 그는 식민지에서 “돈과 양심을 맞바꾸지 않고도 자신의 사업이 도르테가가 얻은 것과 같은 부와 지위를 일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결심했다.”⁵⁸⁾ 말하자면 도르테가와와는 다른 방식의 삶, 노예제에 기반을 둔 신분제도가 아니라, 미국에 걸맞은 새로운 체제인 자본주의체제를 통해서 성공해보이겠다는 의지의 발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자수성가의 신화를 증명해줄 낙원 같은 농장은 자신을 외면한 숙부가 죽으며 물려준 120 에이커의 땅 덕분에, 그리고 원주민인 리나를 비롯한 여성 노예덕분에 꾸릴 수 있었다. 그가 이와 같은 식민지를 기반으로 한 경제 구조가 없었다면 윌러드나 스컬리처럼 계약 노동자로 점철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새로운 세계인 미국에서도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부를 획득할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 자신을 버렸기에 혐오의 대상이었던 구체제의 상속법 덕분에 제이콥은 새로운 사회에서 지주로 정착할 수 있었고, 그가 일한만큼 가져갈 수 있는 부르주아 계급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그의 대저택 짓기가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가치관의 실현물이라 할지라도, 이는 식민지 경제적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제의 착취구조를 답습하는 것이다. 리나가 살거나 물려받을 아이도 없는데 집을 확장하는 것은 불필요

56) Morrison (2008), p. 28.

57) Morrison (2008), p. 28.

58) Morrison (2008), p. 28.

한 일이며, “스스로에게 바치는 불경스러운 기념비를 세우는”⁵⁹⁾ 행동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단순히 대를 이을 자식을 가족을 갖지 못한 제이콥의 욕망에 대한 질타가 아니다. 그의 집이 도르테가의 대저택처럼 식민지에서 착취를 통해 축적한 부로써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산문서는 제이콥에게는 그의 죽음 이후에도 그를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공식적인” 기록이지만, 동시에 여성들을 살아있어도 죽은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기록이기도 하다. 서명된 공식문서가 법에 의거하여 그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 거래 문서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문서를 작성한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아메리카 사회에서 그들의 신원을 보증해주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는 직접 거래 문서를 쓸 수 없다. 여성은 이 자유로운 아메리카에서도 경제적인 자유가 없이 남성에게 복속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제이콥의 죽음 이후 공동체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는 다음 대목을 보자.

농장은 침례교도가 나서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경매에 붙여질 지도 모를 일이었다. 리나는 이 작고 끈끈한 가족 안에 자리 잡고 사는 데 만족했지만, 이제 그것이 어리석은 짓이었음을 깨달았다. 주인님과 마님은 정직하게 자유사상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지만, 상속자가 없으면 그들이 이루어놓은 것은 제비 둥지만도 못했다. 그들은 다른 이들로부터 떨어져 나와 자기들만의 은신처를 만들었고, 가족이 줄 수 있는 피난처와 위안을 잃었다. 침례교도, 장로교도, 부족, 군대, 가족, 무엇이 되었건 외부에서 그들을 에워싸 줄 것이 필요했다. 그녀는 오만이었다고 생각했다. 오만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 말고는 아무도 필요 없고, 아담과 이브처럼, 자신의 피조물 말고는 어느 것에도, 어디에도 빚지지 않은 신들처럼 그런 식으로 삶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주인님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가족은 고사하고 서로 뜻을 같이하는 무리조차 아니라는 진실을 쉽게 가릴 수 있었다. 그들 한명 한명이 다 고아였다.

59) Morrison (2008), p. 44.

The farm could be claimed by or auctioned off to the Baptists. Lina had relished her place in this small, tight family, but now saw its folly. Sir and Mistress believed they could have honest free-thinking lives, yet without heirs, all their work meant less than a swallow's nest. Their drift away from others produced a selfish privacy and they had lost the refuge and the consolation of a clan. Baptists, Presbyterians, tribe, army, family, some encircling outside thing was needed. Pride, she thought. Pride alone made them think that they needed only themselves, could shape life that way, like Adam and Eve, like gods from nowhere beholden to nothing except their own creations.... As long as Sir was alive it was easy to veil the truth: that they were not a family—not even a like-minded group. They were orphans, each and all.⁶⁰⁾

제이콥이 죽고 그 집과 재산을 물려받을 사내아이가 모두 죽은 지금, 레베카를 포함한 여성들은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있다. 그러나 유일한 백인인 레베카조차도 재산을 가질 수 없는 여성이기 때문에 때도 증서를 작성할 수 없고, 따라서 법적인 소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신세계가 제이콥에게 구체제로부터 도망칠 기회의 땅일지 모르나, 레베카에게는 얼굴도 모르는 남편과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불안한 미지의 공간이다. 말하자면 아담을 만난 것처럼 “운이 좋은” 여성들에게 이 공간은 천국⁶¹⁾일 수 있어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구체제와 같은 지옥 같

60) Morrison (2008), pp. 58-59.

61) 소설 속에서 제이콥의 집은 에텐동산처럼 그려진다. 우선 집의 위치가 마을 공동체로부터 동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다음으로는 인용한 장면에서처럼 제이콥과 레베카를 아담과 이브에 비유한다는 점도 에텐동산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집을 짓기 시작해 대장장이가 문에 새겨 넣은 장식이 뱀 모양이었다는 점과 집짓기가 곧 죄짓는 것이라고 평했던 리나의 말과 연결시켜보자면 그에게 죽음을 가져온다는 점에서도 성경적 인유(引喻)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장장이가 뱀의 끝에 새겨 넣은 것이 “독니가 아니라 꽃”(not in fangs but flowers)이라는 점은 제이콥의 죽음이 파멸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Morrison (2008), p. 150).

은 공간이다. 분명한 사실은 이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여성들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남자들이라는 점이다. 운 좋게 좋은 남편을 만났다 하더라도 레베카의 말처럼 갑작스럽게 남편이 죽어 “남자의 지위나 어깨가 없다면, 가족이나 도와주는 이들의 지원이 없다면, 과부는 사실상 법 바깥에 놓인 존재”(Without the status or shoulder of a man, without the support of family or well-wishers, a widow was in practice illegal)⁶²⁾가 되고 만다. 이런 경우 사회적인 신분/계급을 유지하는 데에 바탕이 되는 농장은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침례교도가 나서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회사로 넘겨지거나⁶³⁾ 혹은 왕이 아들이나 충신에게 하사하는 등,⁶⁴⁾ 남성 개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

제이콥의 집이 여성들에게 자신을 억압하는 노예제와 가부장제 질서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낙원을 의미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들 공동체를 지탱했던 것은 제이콥의 재산 증서로 대변되는 노예제와 가부장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은 여성들에게 안전하지만 위험한 공간이며, 집이면서 동시에 “제비동지 만도 못한 공간”⁶⁵⁾이다. 이는 노예 여성들에게는 더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리나는 농사에 무지한 제이콥을 대신해 농사를 짓고 아이 기르기에 서투른 레베카와 함께 아이를 양육하는 등, 제이콥의 농장과 제이콥의 가계(家計)는 리나가 없었다면 존속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에 대한 공식 기록은 제이콥이 그녀를 사올 때 보았던 광고판의 문구, “튼튼한 여성, 기독교로 개종했으며 상품이나 정화로 교환가능, 모든 집안일에 능함”(Hardy female, Christianized and capable in all matters domestic available for exchange of goods or specie)과 같은, 이름⁶⁶⁾도 없이 마치 사고파는 상품처럼 기능에 대한 설명이 유일하다.⁶⁷⁾

62) Morrison (2008), p. 98.

63) Morrison (2008), p. 12.

64) Morrison (2008), p. 13.

65) Morrison (2008), p. 58.

이와 같은 상황은 리나 뿐만 아니라 농장 구성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실이다. 리나를 비롯한 여성들이 계급과 인종을 초월한 관계를 맺고 있던 내부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들은 남성들 간의 거래 문서를 통해 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다. 제이콥이 플로렌스를 데려올 때에도 “새로운 문서를 작성했다.”⁶⁸⁾ 그 내용은 “플로렌스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감안해 스페인 은화 스무 개 값어치가 있다는 데 동의하고 ... 영국 돈으로 십오 파운드를 감해 주기로 하[고]”(Agreeing that the girl[Florens] was worth twenty piece of eight, considering the number of years ahead of her and reducing the balance by ... fifteen English pound)⁶⁹⁾ 제이콥의 집으로 왔다. 종합해보자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노예 여성들은 문서를 쓸 수 없고, 오직 재산과 같이 기록되기 때문에 그들의 개인적인 내면은 모두 묵살되고 오직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물건과 같은 존재로서만 공식 문서에 재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설의 주된 화자인 플로렌스가 자신의 이야기를 발화하며 써내려가는 장소가 종이와 아닌 바로 가부장제와 식민 지배 구조를 상징하는 제이콥의 집이라는 점을 눈여겨보아야만 한다. 플로렌스가 제이콥

66) 노예제와 이름의 문제는 자연스레 나머지 여성인물들에게서 보다 확실히 드러난다. 리나는 프랑스 군인들이 말살한 인디언 부족의 아이로, 그녀의 이름은 “친절한” 장로교도들이 그녀에게 만약을 대비하라는 뜻에서 고대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아내의 이름인 메살리나(Messalina)라고 붙여주었다(Morrison (2008), p. 52). 소로우 또한 자신의 진짜 이름이 있지만 쌍둥이를 제외한 사람들 모두 물에서 만난 백발의 여성이 붙여준 소로우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레베카의 경우는 제이콥과의 결혼을 통해 바크(Vaark)라는 성을 갖게 되지만, 이는 그녀가 태어났을 때 부여된 이름에 언제나 붙는 꼬리표로, 결혼을 통해 여성이 아버지-가문의 성에서 남편-가문의 성으로 전환되는 것은 가부장체제 하의 여성이 노예와 같은 위치에 놓여있으며, 가부장제의 권력이 합법적으로 여성에게 강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67) Morrison (2008), p. 52.

68) Morrison (2008), p. 27.

69) Morrison (2008), p. 27.

의 바닥과 벽에 못으로 새겨 넣은 이야기는 그 시작점과 끝을 알 수 없다. 스피박은 라니 굴라리가 고유한 정체성이 기록된 기록물을 사원에 보관되어 있는 사망 기록(thanatography)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⁷⁰⁾ 스피박에 따르면 이 사망 기록서가 양피지에 쓰여 있어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살아있는 현재’”(a kind of “living present”)라는 의미를 가진다.⁷¹⁾ 이 사망기록서처럼 플로렌스의 이야기가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공간에 쓰여, 그녀의 기록은 더 이상 “과거란 기억의 과거가 아니며,”⁷²⁾ “그 공간에는 과거란 없다.”⁷³⁾ 이러한 플로렌스의 말하기/글쓰기는 플로렌스라는 역사서에서 지워진 개인에게 자신의 경험을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며, 그녀는 이 글쓰기/말하기를 통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음 소설의 도입부를 보도록 하자.

두려워 마요. 내가 한 짓이 있기는 하지만 내 이야기가 당신에게 상처를 줄 일은 없으니까. 어둠 속에 조용히 있겠다고 약속할게요.... 내가 설명할게요. 당신에게 하는 이야기를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오직 꿈속에서만, 주전자에서 피어오르는 김 속에서 개의 옆모습이 아른거리는 그런 순간에만 접할 법한 신기한 일들로 가득할 거예요.

Don't be afraid. My telling can't hurt you in spite of what I have done and I promise to lie quietly in the dark.... I explain. You can think what I tell you a confession, if you like, but one full of curiosities familiar only in dreams and during those moments when a dog's profile plays in the steam of a kettle.⁷⁴⁾

70) Spivak (1990), p. 243.

71) Spivak (1990), p. 243.

72) Spivak (1990), p. 243.

73) Spivak (1990), p. 243.

74) Morrison (2008), p. 1.

소설을 여는 플로렌스의 목소리는 독자들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너”를 향해 쓴 편지 형식의 글이다. 이 장면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야기의 사실성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청자의 존재다. 우선 사실성에 대해 논해보기로 하자. 플로렌스가 스스로 밝히고 있듯 그녀의 이야기는 어떤 사건에 대한 그녀의 설명이다. 만약 이 설명이 청자와 플로렌스 간에 오해 때문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얘기는 진실을 밝히는 고백이 될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플로렌스의 이야기는 꿈속에서, 주전자의 피어오른 김 속에서 개의 옆모습이 아른거리는 것과 같이 불확정적인 순간들에 기대고 있다.⁷⁵⁾ 이러한 플로렌스의 이야기가 편지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본다면, 앞서 논했던 남성들의 편지와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앞선 남성들의 편지가 객관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나아가 정의를 세운다는 자의식을 갖고 있다면, 플로렌스의 이야기는 청자와의 공감대를 가지려는 적극적인 소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는 사실성뿐만 아니라 청자/독자가 이것을 듣지도, 읽지 않을 것임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플로렌스는 “당신 말고는 그 누구에게도 할 수 없으면서도”⁷⁶⁾ 그녀의 청자가 이 이야기를 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소설이 진행된 후에 밝혀지지만 이 “너”는 대장장이다. 그는 언젠가 배울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읽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플로렌스의 편지는 응답을 받을 수 없다. 주디스 버틀러 (Judith Butler)에 따르면 플로렌스처럼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자신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다르다고 구분 짓는다.⁷⁷⁾ 후자의 경우에서 말하는 “나”는 언제나 청자인 “너”를 상정해야 하며, 설명하는 “나”는 설명을 들어주는 “너”를 위해, 그리고 “네”가 있었기에 존재할 수 있다.⁷⁸⁾

75) Morrison (2008), pp. 160-61.

76) Morrison (2008), p. 160.

77) Judith Butler (2005), *Giving an Account of Oneself*, New York: Fordham UP, p. 32.

78) Butler (2005), p. 32.

말하고 쓰는 주체와 듣고 읽는 대상의 구도로 대장장이와 플로렌스의 관계를 살펴보면 플로렌스가 말하고 쓰는 주체가 되기 위해선 대장장이라는 청자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로체스터의 편지처럼 플로렌스는 남성 청자/독자를 향해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남성 청자/독자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야기를 검열하지는 않는다. 또한 플로렌스의 이야기는 로체스터의 편지처럼 앙투아네트 같은 타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플로렌스는 오롯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또한 청자/독자의 동의와 승낙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해간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플로렌스 이야기는 그녀가 발화하는 시제가 현재형이라는 사실 때문에 독자들에게 완전한 신뢰를 얻기 어렵다. 그녀는 제이콥의 비어있는 대저택 바닥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⁷⁹⁾ 모든 사건이 종결된 지점에서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모든 사건들을 현재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녀의 이야기가 현재 시점으로 서술되는 큰 까닭은 영어가 서툴기 때문인데 그녀는 가톨릭 신부로부터 영어를 배웠고, 이마저도 너무 짧은 시간에 배웠던 탓에 제이콥 집에 처음 왔을 때에는 레베카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고백한 바 있다.⁸⁰⁾ 그녀의 언어는 완벽한 영어와 “거의 같지만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닌”(almost the same, but not quite) 언어다.⁸¹⁾ 그녀의 발화가 현재형인 것은

79) 발레리 밥(Valerie Babb)은 플로렌스가 주인이 없는 바크의 저택에 서술하는 것과 모리슨의 서술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아가 그는 이 작품이 미국 사회라는 공동체를 나타내는 일종의 대안 역사 서사로 읽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Valerie Babb (2011), “E Pluribus Unum?: The American Origins Narrative in Toni Morrison’s *A Mercy*,” *MELUS: Multi-Ethnic Literature of the US* 36.2 p. 159).

80) 아니샤 와르디(Anissa Wardi)는 플로렌스의 독해 능력이 단순히 문자에 국한되지 않고 자연세계의 현상을 읽어 내는 데까지도 확장됐다고 지적했다(Anissa Wardi (2011), “The Politics of ‘Home’ in *A Mercy*,” *Toni Morrison’s A Mercy: Critical Approaches*, Newcastle upon Tyn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p. 39).

81) 바바(Homi K. Bhabha)에 따르면 식민지적 모방은 “거의 동일하지만 아주 똑같이 않은 차이의 주체”(as a subject of a difference that is almost the same, but not quite)로

영어가 능숙한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 속 시제가 과거형으로 서술되는 것과 비교할 때 주된 서술자로서 소설 서사 전체의 내용을 불확실하게 만든다는 약점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현재형으로 서술되는 플로렌스의 서사는 역설적으로 연속적인 사건들에 생동감을 부여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한 예로 플로렌스가 장화에 대해 얘기하는 부분을 들 수 있겠다. 먼 길을 떠나야 하는 플로렌스에게 레베카가 제이콥의 장화를 주는데, 이에 대해 플로렌스는 신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어린 시절 난 맨발로는 절대로 지낼 수 없어서 진짜 더운 날에도 늘 누구 것이라도 좋으니 신발을 달라고 해요”(When a child I am never able to abide being barefoot and always beg for shoes, anybody’s shoes, even on the hottest days)⁸²)라는 과거의 얘기로 전환한다. 플로렌스가 제이콥의 집에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 현재임을 상기했을 때, 대장장이를 찾으러 떠나는 길과 어린 시절의 신발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과거의 얘기이지만, 플로렌스는 시간의 순서를 무시한 채 현재형으로만 쓰고 있다. 스피박은 음성중심주의, 즉 말하기는 목소리와 의식이 긴밀하게 연결된 것으로 말하기를 통해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재현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반면 글쓰기는 말하기의 간접적인 사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⁸³) 이 말은 글쓰기가 사색을 거쳐 의식을 규정하는 것인

서 인식 가능한 타자를 지향하는 주체의 열망이다(Homi. K. Bhabha (1994), *The Location of Culture*, New York: Routledge, p. 122). 바바는 모방의 담론(discourse of mimicry)이 양가성(ambivalence)을 둘러싸고 구성된다는 속성에 주목하고 있다. 모방은 모방의 대상 즉, 식민의 주체와 완전히 같아지지 못하고 끊임없이 미끄러지고, 초과하며 대상과의 차이를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 바바의 주장이다(Bhabha 1994, p. 123).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만 결코 같은 것이 될 수 없는 모방은 타자를 은폐하는 동시에 완전히 부인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자아의 분열 상태를 나타내는 “차이의 표상화”다. 따라서 모방은 식민권력 담론에 내제되어 있는 규칙에 저항하면서 여전히 그 권력 안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전복적인 힘을 제공한다(Bhabha (1994), p. 122).

82) Morrison (2008), p. 4.

데 반해, 말하기는 인상주의적인 경험을 기초로 스스로에 대한 의미가 발생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자기 정체성 형성의 과정인 셈이다. 이런 논점에서 플로렌스의 이야기를 바라보면 그녀의 이야기는 지나간 시간, 죽은 시간으로서의 과거의 것이 아니라 현재로 불러와 재규정함으로써 스스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점은 플로렌스의 글이 앞서 살펴본 제이콥의 저택이라는 남성의 공간에서 시작과 끝점을 알 수 없이 쓰인다는 특색과 더불어 플로렌스의 목소리를 거대 서사에 존립시킬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한다.

플로렌스의 편지형식 내러티브가 제이콥의 재산문서나 광고 문구에 대항하며 서발턴이 발화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냈다면, 레베카의 편지는 플로렌스를 비롯하여 제이콥이 죽은 이후의 여성 공동체를 사회로부터 지키는 여성적 공식 문서로서 작동한다. 흑인인 플로렌스가 마을을 돌아다니다 과부 일링(Widow Ealing)의 집에 잠시 들렀는데, 이 때 집을 방문한 마을의 남성들이 자유로이 돌아다니는 그녀를 보고 플로렌스의 몸에서 악마라는 표상을 찾아내 그녀를 악마로 규정하려고 한다.⁸⁴⁾ 방문객들이 플로렌스를 대상으로 독해/의미화하는 행동은 레베카의 편지와 대치된다.

이 편지에 서명한 밀턴의 레베카 바크 부인은 이 편지를 지닌 여성의 신원을 보증합니다. 그녀는 제 소유이며 이는 그녀의 왼손바닥에 난 화상 흉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한 통행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 저의 생명이 그녀의 빠른 귀환에 달려 있습니다.

레베카 바크 부인 씀
1690년 6월 18 밀턴

83) Gayatri Chakravorty Spivak (2006), *In Other Worlds: Essays in Cultural Politics*, New York: Routledge, p. 212.

84) Morrison (2008), p. 112.

The signatory of this letter, Mistress Rebekka Vaark of Milton vouches for the female person into whose hands it has been placed. She is owned by me and can be knowne by a burne mark in the palm of her left hand. Allow her the courtesie of safe passage and witherall she may need to complete her errand. Our life, my life, on this earthe depends on her speedy return.

Signed Rebekka Vaark, Mistress,
Milton 18 May 1690.⁸⁵⁾

레베카의 편지는 자신과 편지 속 대상을 재구성했던 다니엘이나 로체스터의 편지와는 다르다. 물론 그들의 편지처럼 레베카의 편지도 한 개인을 사회적인 통념으로 규정하는 모습이 담겨있지만, 그녀의 편지가 사회적 통념을 이용하여 플로렌스를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징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전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편지는 플로렌스를 레베카를 포함한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우리”라는 언급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때 우리는 맥락상으로는 제이콥 농장의 구성원으로, 이 편지를 읽게 될, 잠정적인 수신인/독자인 글을 아는 남성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레베카의 편지는 앞서 도르테가와 제이콥의 작성한 문서와 다르게, 그녀 스스로가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플로렌스에게 제공한다. 이를 위해 레베카의 편지는 일링의 집에 방문한 남성들의 독해에 대항한다. 그들은 갑자기 등장한 플로렌스를 보고 “이렇게 검은 건 처음 본다”(I have never seen any human this black)며 플로렌스를 악마(The Black Man)로 생각한다.⁸⁶⁾ 이때 그녀가 악마임을 확신하는 데에 사용되는 단서들(피부색, 혀가 갈라지지 않았는지, 꼬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등)⁸⁷⁾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고,

85) Morrison (2008), p. 112.

86) Morrison (2008), p. 111.

87) Morrison (2008), p. 113.

남성 관찰자의 시선에 의해 발견되는 것이다. 플로렌스의 몸에 드러나는 악마의 징후들은 레베카의 편지가 남성에게 읽히자 그 의미를 잃어버린다. 그 까닭은 인용문에서 보듯 레베카의 편지가 마을 공동체가 기대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적인” 필요에 의해 쓰인 편지는 플로렌스를 노예로 규정하지만 이는 앞서 편지 서술자의 주체성을 완성시켰던 경우와는 다르다. 오히려 플로렌스가 악마라는 정체성을 폭력적으로 뒤집어쓰려는 이 상황에서 그녀를 인간으로 증명하는 증거로 작동하고 있다. 말하자면 레베카의 편지는 편지의 발신인과 수신인 사이에서만 통하는 의미 작용을 이용해 편지 속 인물을 억압하고 사회적으로 정형화된 이미지로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농장 밖에서도 그녀가 개인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 편지가 없으면 플로렌스는 마을에서 “버림받은 약한 송아지, 등딱지 없는 거북, 사정을 알려주는 표지도 없이 곁에는 내가 지니고 태어난 어둠뿐인 하인”(a weak calf abandon by the herd, a turtle without shell, a minion with no telltale signs but a darkness I am born with)⁸⁸⁾이지만, 레베카의 편지로 인해 플로렌스는 일시적이지만 “어딘가에 속해있고 적법한”(belong and am lawful)⁸⁹⁾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다.⁹⁰⁾ 말하자면 “이 편지가 말하는 것은 누구도 나 [플로렌스]를 막지 말라는 뜻”(what it[the letter] means to say to any who stop me)으로, 편지는 마을 사람들이 흑인 여성의 몸에 부여한 악마성을 해체하는 역할을 하고, 플로렌스의 실존적 자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88) 수잔나 베가-곤잘레즈(Susana Vega-González)는 이 장면에서 편지에 주목하기보다는 플로렌스 스스로의 자아를 어둡고 비어있다는 데에 주목했다. 곤잘레즈는 플로렌스의 어두운 자아가 플로렌스 꿈속에서 호수를 쳐다보는 장면으로 구체화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Susana Vega-González (2011), “Orphanhood in Toni Morrison’s *A Mercy*,” *Toni Morrison’s A Mercy: Critical Approaches*, Newcastle upon Tyn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pp. 126-27).

89) Morrison (2008), p. 4.

90) Morrison (2008), p. 115.

표현수단이며, 사회적 존재로 편입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나아가 레베카의 편지가 권위를 가진 문서로 남성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것이 편지 첫머리에 등장하는 “편지의 서명”이라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플로렌스뿐만 아니라 편지를 쓴 레베카 역시도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줄 재산을 유지할 남편도 아들도 없지만, 편지를 쓰고 자신의 완전한 이름을 서명함으로써 레베카 부인이라는 사회적 정체성을 보장 받는다. 이 때문에 레베카는 남편을 잃은 아네트나 과부 일링의 경우처럼 내면은 무너졌지만, 두 번째 죽음, 즉 사회적인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 그녀는 대장장이의 도움으로 병을 떨쳐냈고, 성경을 읽거나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3. 나가며

지금까지 『탈식민이성비판』에서 등장한 제프리 버치의 편지를 시작으로 개인이 쓴 문서들이 어떻게 타자를 생산해 내는지를 살펴보았다. 편지라는 사적인 문서가 권위를 지닌 사료로서 변모하는 데에는 제국의 질서뿐 아니라 가부장제의 질서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때 문서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문서를 만들어낸 작가이며, 이것이 이름이라는 사회적 정체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작가의 이름이 고유명사라면, 이들이 새로이 쓰는 여성 혹은 문서 속 대상의 이름은 일반명사로 등장한다. 이와 같은 편지를 비롯한 문서의 속성을 두 소설 속 문서에 재현된 남성 인물들과 여성 인물들의 편지를 중심으로 그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리스의 『광막한 싸가소 바다』에서 로체스터 역시 제프리 버치처럼 편지로 여성 인물인 앙투아네트를 버사로 재명명하고 식민 주체성을 획득한다. 또한 식민지 유색인 남성을 대변하는 다니엘도 로체스터에게 편지를 씌으로써 로체스터가 식민 주체가 되는데 에 일조

하는 한편, 스스로도 사회적인 주체성을 가진 유색인 남성이 될 수 있었다. 이들의 편지는 앙투아네트의 과거를 재 서술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그녀를 남성들의 주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데, 이를 스피박의 용어로 토착정보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리스의 소설은 『제인 에어』를 다시 쓴 작품이지만, 『제인 에어』의 프리퀼(prequel)이기 때문에 『제인 에어』가 갖고 있는 구조적 모순점을 드러내는 데에서 멈출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제인 에어』의 서사 구조에서는 지주계급의 크레올 여성인 앙투아네트마저도 침묵 속에서 “버시”라는 맡은 임무를 묵묵히 수행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색인 여성인 크리스토퍼인은 서사 밖으로 걸어 나가 버린 것이다.

『자비』에서도 남성의 문서는 편지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자아를 구축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소설은 이에 대항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플로렌스의 발화하며 쓰기라는 독특한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거대 서사에서 지워진 서발틴의 목소리를 되살려 낼 공간을 확보했다. 이 공간은 제이콥의 저택으로, 모리슨은 소설 속에서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제이콥의 공간까지도 부숴버림으로써, 어떠한 공간이든지 식민지 노예무역과 착취 구조 위에서는 존속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남성이 보호하는 안전한 공간은 역설적으로 여성들에게는 그들을 가두는 공간이다. 제이콥의 문서는 그의 저택처럼 여성들을 이 공간에 귀속시키는 장치이면서 여성들이 이 문서 없이는 온전한 주체로 거듭날 수 없게 억압하는 사회구조의 환유다. 레베카의 편지는 제이콥이 없이는 사회적인 자아로 존재할 수 없는 이들을 사회적 존재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서 소설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 에덴동산 같은 이 공간을 나갔다 온 경험덕분에 플로렌스는 비로소 자신의 과거를 마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다. 플로렌스가 밤바다 저택에 들어가 벽과 바닥에 못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새겼고, 리나의 도움을 받아 이 집에 불을 질러 자신의 글을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는 대목⁹¹⁾에

서 스스로의 공간을 찾아야 할 것임을, 찾을 수 있는 힘이 플로렌스에게 생겼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말하자면 여성들에게 편지 쓰기는 도구가 아니라 행동인 셈이다. 플로렌스에게 글쓰기는 타자의 눈과 말에 의해 규정된 정체성의 재확인이나 그로부터 벗어나 다른 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다. 플로렌스는 글을 쓰면서 흑인 여성 노예라는 집합명사에 휩쓸리지 않고 플로렌스라는 고유명사로서의 삶을 지키려 했다. 플로렌스는 제이콥의 집을 나서며 대장장이에게 보내는 이 편지 말미에 “황무지가 되었지만 플로렌스”(become wilderness but I am also Florens)라고 자신의 서명을 함으로써, 상처를 입힌 대장장이에게 “용서받지 못한 채”(unforgiven), 자신을 버린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unforgiving)은 상태로, “충만한 상태”이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 즉, 노예이지만 그 경험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공존하는 존재로 거듭났음을 암시하고 있다.⁹²⁾

91) Morrison (2008), p. 161.

92) Morrison (2008), p. 161.

참고문헌

【자 료】

- Morrison, Toni (2008), *A Mercy*, New York: Vintage.
- Rhys, Jean (1999), *Wide Sargasso Sea*, New York: Norton.
- Spivak, Gayatri Chakravorty (2006), *In Other Worlds: Essays in Cultural Politics*, New York: Routledge.
- _____ (1999), *A Critique of Postcolonial Reason: Toward a History of the Vanishing Present*, Cambridge: Harvard UP.
- _____ (1996), "Echo," *The Spivak Reader* (ed. by Donna Landry and Gerald MacLean), New York: Routledge.
- _____ (1994), "Can the Subaltern Speak?" *Colonial Discourse and Post-colonial Theory* (ed. by Patrick Williams and Laura Chrisman), New York: Columbia UP.
- _____ and Sarah Harasym (1990), *The Post-colonial Critic: Interviews, Strategies, Dialogues*, New York: Psychology Press.

【논 저】

- Babb, Valerie (2011), "E Pluribus Unum?: The American Origins Narrative in Toni Morrison's *A Mercy*," *MELUS: Multi-Ethnic Literature of the US* 36.2.
- Berman, Carolyn V. (2006), *Creole Crossings*, Ithaca: Cornell UP.
- Bhabha, Homi. K. (1994), *The Location of Culture*, New York: Routledge.
- Butler, Judith (2005), *Giving an Account of Oneself*, New York: Fordham UP.
- Chakrabarty, Dipesh (2000), "Subaltern Studies and Postcolonial Historiography," *Nepantla: Views from South* 1.1.
- Chatterjee, Partha (1999), "In Conversation with Anuradha Dingwaney Needham," *Interventions*, 1.3.
- Hiddleston, Jane (2010), "Spivak's Echo: Autobiography, Narcissism and the Theoretical Voice," *Poststructuralism and Postcoloniality*, Liverpool: Liverpool UP.

- Huggan, Graham (1994), "A Tale of Two Parrots: Walcott, Rhys, and the Uses of Colonial Mimicry," *Contemporary Literature* 35.4.
- Hulme, Peter (1994), "The Locked Heart: the Creole Family Romance of *Wide Sargasso Sea*," *Colonial Discourse/Postcolonial Theory*, Manchester: Manchester UP.
- Kimney, Deborah A. (2005),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Metatextuality and the Politics of Reading in Jean Rhys's *Wide Sargasso Sea*," *Women's Studies* 34.2.
- Mardorossian, Carine M. (1999), "Shutting Up the Subaltern: Silences, Stereotypes, and Double-Entendre in Jean Rhys's *Wide Sargasso Sea*," *Callaloo* 22.4.
- McClintock, Anne (1992), "The Angel of Progress: Pitfalls of the Term 'Post-colonialism,'" *Social Text* 31/32.
- Morrison, Toni (1993), *Playing in the Dark*, New York: Vintage.
- Parry, Benita (1999), "Two Native Voices in *Wide Sargasso Sea*," *Wide Sargasso Sea*, New York: Norton.
- Ranajit, Guha (1997), *Dominance Without Hegemony*, Cambridge: Harvard UP.
- Said, Edward (1994), *Culture and Imperialism*, New York: Vintage.
- Vega-González, Susana (2011), "Orphanhood in Toni Morrison's *A Mercy*," *Toni Morrison's A Mercy: Critical Approaches*, Newcastle upon Tyn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 Wardi, Anissa (2011), "The Politics of 'Home' in *A Mercy*," *Toni Morrison's A Mercy: Critical Approaches*, Newcastle upon Tyn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 Wick, Alexis (2013), "Narcissus: Woman, Water and the West," *Feminist Review* 103.1.

원고 접수일: 2016년 10월 18일

심사 완료일: 2016년 10월 24일

게재 확정일: 2016년 10월 26일

Abstract

Considering Letters as a Historical Text and
Women's Representation

Oh, Ye Ji*

Expanding Gayatri Chakravorty Spivak's reading of Jeffery Birtch's letter in *A Critique of Postcolonial Reason: Toward a History of the Vanishing Present*, this article argues that female letter-writing is different from male letter-writing in that it constructs subjectivity of Women that defies the patriarchal colonial regime by using its social decorum. According to Spivak, a man's letters allow him to become a "representative image" of colonial subject within a historical context. Letters are private, but also paradoxically represent the writers' social ego. I find that it is not only in the case of letters written by a white male colonial subject but also Daniel's letter, working as a native informant, plays a pivotal role in supporting Rochester and making himself a colonial subject in Jean Rhys's *Wide Sargasso Sea*. Daniel's letter also redefines Antoinette's personal history. In contrast with Daniel's letter, Rebecca's letter in Toni Morrison's *A Mercy* subverts the social definition of women

* PhD student,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by vacuating the stereotypical meaning of woman that is expected to be reflected in a letter. Furthermore, I argue that Florens's letter has its potential resistance to patriarchy complicit with colonialism for it is written in the Jacob's house which was built within the colonial structure.